금연상담전화 | 1833-903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주매일

2019년 9월 25일 수요일 (음 8월 27일) 제238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중소기업인들과 현장공감 소통

송하진 도지사, 완주 산단 정석케미칼 방문해
日 수출규제 등 어려움 이겨내고 있는 기업들과
현장 간담회 열고 경영애로 · 건의사항 청취
중소기업 고용 창출 · 투자 촉진 방안 등 논의

전북도는 24일 완주 산단에 위치한 ㈜정석케미칼에서 도내 중소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도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성장 활로를 찾기 위한 릴레이 현장소통을 이어갔다.

전북도가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지역과의 상생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는 기업을 방문해 현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도는 24일 완주 산단에 위치한 ㈜정석케미칼에서 도내 중소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일본 수출규제의 경제 위기 속에서도 수입 다변화 등을 통해 성장 활로를 찾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생산 현장의 애로 청취와 공감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화를 재점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 익산 중소기업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대책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먼저, 일본수출 규제 확대에 따른 우리 도의 대응전략으로 연구개발을 통한 소재부품 자립화 및 경쟁력강화, 수출활력 촉진을 위한 해외 마케팅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를 구축 하여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특허기술 상용화 지원과 전북 선도기업 협력사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 공급하고, 주 52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지속적인 업종별 모니터링과 함께, 정부 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홍보 강화를 통해 조기 확산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현장지도 ·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성장산업 육성계획 수립 추진, 자동차, 조선, 뿌리기계 등 주력산업 고도화 다각화로 산업구조 개편 및 제조업 활력을 제고하고, 탄소산업 활성화를 위해 효성 대규모 투자유치, 탄소산업 비전과 발전전략 수립, 탄소융복합 분야 기업 지원,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탄소산업 저변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범공장 구축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금융지원 등을 통한 도내 기업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도내 기업에서는 대기 자가측정 대상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 새만금신항만 조속 완공, 연구개발특구 입주사의 운영업종 확대 등을 건의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내수 경기 활성화 등에 기여한 중소기업들을 격려하고 그간 강조해온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면서 "지역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전북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관계 부처과 함께 적극 지원하고 정치권과 협력강화를 통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가 열린 (주)정석 케미칼은 일상 곳곳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도료를 친환경적으로 개발 생산하고 있는 기업으로, 기업의 이윤을 지역사회에 환원해 지역사회 발전과 함께 동반성장을 목표로, 다양한 사내 복지제도 마련 및 고용창출(종사자 207명)을 이뤄내고 있는 기업이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5면 - 지역선도대학 육성 하나로 뭉쳤다

전국체전 성화, 한옥마을을 달리다

전주시, 체전 성화맞이 환영행사 노송광장서 개최
시청 광장부터 경기전에 이르는 2.64km 성화봉송
체전 성화, 내달 4일 잠실종합경기장에 안착 예정

24일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성화봉송 행사를 실시한 가운데 1번 주자인 전주시민 김민정씨가 성화를 들고 힘차게 달리고 있다.

제100회째를 맞은 전국체육대회를 밝혀줄 성화가 전주한옥마을을 달렸다. 제100회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4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주시는 마니산에서 채화돼 전국 24개 도시를 순회하는 제100회 전국체전 성화가 24일 오전 전주에 도착해 16명의 전주시민 주자들과 함께 전주한옥마을을 달렸다고 밝혔다.

전주에 도착한 성화는 노송광장에서 시민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회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환영행사를 시작으로 2.6㎞구간을 달렸다.

김양원 전주부시장의 인계로 시작된 전주지역 성화봉송은 노송광장에서 출발해 충경로 사거리를 지나 싸전다리와 남천교를 건너 경기전까지 진행됐다.

특히 성화봉송 도착구간인 한옥마을 태조로에서는 전주대학교 태권도공연단이 참여해 전주의 고풍스런 모습과 전통문화를 전국에 소개하는 특색 있는 봉송을 연출했다.

김양원 전주부시장은 "전국체전 100년사의 뜻깊은 자리에 전주시가 함께해 대단히 기쁘며, 전국체전의 무궁한 발전과 대한민국 체육의 영광을 기원한다"라며 "전주시 선수단을 포함한 전라북도 선수단이 역사적인 이번 체전에서 유감없이 기량을 발휘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주일 동안 전국 주요도시를 순회하고 있는 성화는 전주를 떠나 광주로 향했으며, 최종 개최지인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모두 돌아 개막일인 10월 4일 잠실종합경기장에 안착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경기 파주 소재 돼지농장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3일 중점관리지역 내 소재한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소재 돼지농장(2300여두 사육)의 의심축 신고 건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한 결과, 24일 오전 4시경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으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ASF 확진 판정을 받은 돼지 농장은 지난 17일 파주시 연다산동 소재 돼지농장, 18일 연천군 백학면 소재 돼지농장, 23일 김포시 통진읍 소재 돼지농장, 24일 파주시 적성면 소재 돼지농장 등 4곳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의 의심축 신고접수 직후부터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하여 사람, 가축 및 차량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해 왔으며, 이번 ASF로 확진됨에 따라 살처분 조치를 즉시 실시하고, 발생원인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서는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면밀한 임상관찰을 통해 의심축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는 국번없이 1588-9060, 4060이다. /김윤상 기자